

말레이시아 : 하이테크 산업화 추구

(전자산업부문에의 투자 기회)

— 말레이시아 대사관 —

말레이시아의 전자산업

1972년 최초의 반도체 조립공장이 설립된 이래 수출 지향적인 전자산업은 급속 성장을 거듭하여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부문 중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850개 이상의 기업이 광범위한 종류의 전자부품, 소비자 가전제품 및 산업용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1995년도 총 생산액은 20조 6,685억원(674억 RM)에 달하였으며 약 302,000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전자제품의 1995년도 수출 총액은 24조 9,923억원(815억 RM)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도의 경우 전자제품의 총 수출액은 20조 3,619억원(273억 RM)으로 전체 공산품 수출의 55.2%를 차지하였다. 1994년도의 전자제품 수출을 세분화해 보면 전자부품이 8조 3,717억원(273억 RM), 소비자 가전제품이 5조 4,584억원(178억 RM), 그리고 산업용 전자제품이 6조 5,011억원(212억 RM)을 차지하였다.

전자산업은 앞으로 수출 고용 및 제조 부가가치 증대에, 또 나아가서는 말레이시아의 기술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말레이

시아의 산업화 전략은 수출 지향적이며 고부가가치인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의 진흥과 연구 개발 및 기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첨단 전자산업(컴퓨터 주변기기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프로그램의 디자인, 개발 및 생산, 통신 장비의 개발과 생산, 집적회로의 설계 및 생산)과 광전자전압(광전자시스템 콤포넌트, 광 시스템 콤포넌트, PHOTOCOUPPLERS 및 반도체 레이저 등의 개발 및 생산)의 개발과 생산 등과 같은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해외 투자지를 제공한다.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부문에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다. 1980~1995년 기간동안 한국은 217건의 제조 프로젝트에 총 1조 2,267억원(40억 RM)을 투자하였다. 한국기업에 대한 1995년도 투자 승인은 총 20건의 제조 프로젝트에 1,850억원(6억 430만 RM)에 달하였다. 주요 투자부문은 전기, 전자 및 비금속광업 등과 같은 주요 산업부문이었다. 말레이

시아에 제조시설을 설립한 주요 한국 기업으로는 Samsung Corning (M) Sdn.Rhd.(칼라 브라운관용 유리판넬과 유리 Funnel), Samsung Electronic Video(M) Sdn. Bhd.(전자렌지), Samsung Electron Devices (M) Sdn. Bhd.(부라운관과 전자총)을 들 수 있다.

양국간의 산업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과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996년 4월 19일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한국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히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하이테크 전자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며, 특히 정밀 전자 부품 및 부분품 등 말레이시아의 다음 단계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하이테크 전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

말레이시아의 산업 발전 진흥 및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으로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은 서울사무소 설립 등을 통해 한국투자자들의 말레이시아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및 시설 설립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